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. 이미지투데이 제공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구속됐다.16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대부업법위반, 채권추심법위반,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(38)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.A 씨 등은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려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, 연체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.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금 2억 원을 바탕으로 3억 원을 회수했다. 피해자는 3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.피해자 중 30여 명에게는 나체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받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.일당은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어 상환을 압박했는데, 피해자 중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전화 협박을 받은 지인 중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.검찰 관계자는 "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, 불법 영상물을 삭제·차단 조치하는 등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"고 말했다.